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

-양육태도, 의사소통 양식, 애착 관계를 중심으로



2008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송진숙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정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

지도교수 황희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송진숙

송진숙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8월



주심 이 정 화 (인)

위원 강 승 희 (인)

위원 이 희 영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6
3.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8
1. 부모-자녀 관계	8
2. 휴대폰 과다사용	17
3. 부모-자녀 관계와 휴대폰 과다사용의 관계	20
III. 연구 방법	23
1. 연구대상	23
2. 연구절차 및 도구	24
3. 자료 분석 방법	30
IV. 연구 결과 및 해석	31
1. 인구학적 특성과 휴대폰 첫 사용 시기	31
2. 휴대폰 사용 집단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	33
V. 논의 및 결론	40
1. 논의	40
2. 결론 및 제언	44
참고문헌	47
부록	55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의 성별 및 학교별 현황	23
<표 2> 부모 양육태도 척도	25
<표 3> 부모 의사소통 척도	26
<표 4> IPRA-R의 구성	28
<표 5> 휴대폰 과다사용 검사의 하위 요인별 내용	29
<표 6>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1
<표 7> 조사대상자의 휴대폰 첫 사용 시기	33
<표 8> 휴대폰 과다사용·비과다사용 집단 간 휴대폰 사용 정도의 차이	34
<표 9> 휴대폰 과다사용·비과다사용 집단 간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35
<표10> 휴대폰 과다사용·비과다사용 집단 간 양육태도의 차이	37
<표11> 휴대폰 과다사용·비과다사용 집단 간 의사소통 양식의 차이	38
<표12> 휴대폰 과다사용·비과다사용 집단 간 애착의 차이	38

그 립 목 차

<그림 1>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	10
--------------------------------	----

DIFFERENCE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USE DEGREE OF CELLULAR PHONE
AND THEIR PARENT-CHILD RELATION.

by

Jin Sook Song

Major in Education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use degree of cellular phone and their parent-child relation.

The questions for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re ther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overusing and non-overusing group? Second, are th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 rearing attitude in two groups? Third, are th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s-child communication in two groups? Fourth, are th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s-child attachment in two groups?

The subjects are the 2nd grade of 352 students who are currently using cellular phones by collecting the samples of 3 middle schools in Busan(1 male middle school, 1 female middle school, 1 co-educational middle school). The device of measurement for realities of using cellular phone was self-made questionnaire, for child rearing attitude was Jong-Seung Lee & Sung Sim-Oh's test(1982) that Ho-Eun Rho(2001) revised, for parent-child communication was Olson & Barns' test reversed and revised by Hye-Young Min(1990), for parent-child attachment was Armsden and Greenberg's test(1987), which was revised and reversed by Jeong Ok(1998), and for overusing of cellular phone was Hye-Jin Jang's test(2002) based on Young's

internet addiction test. According to the cellular phone addiction test, this study defined the over-users group of cellular phone(n=90) as upper 25%, the non-overusers group(n=88) as lower 25%. As the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cross analysis, t-verif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hi(χ^2) was carried out not to find ou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except the economic ability of families. This shows that over-users are apt to use cellular phones more according to the economic ability of families.

Seco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child rearing attitude in two groups. Over-users showed lower mean score both in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 and in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 compared with non-over users. Over-users perceived their fathers' and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 negative and regulating.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s-child communication. Over-users showed lower mean score in fathers' and mothers' communication, compared with non-over users. They felt their fathers' and mothers' communication pattern more dysfunctional and closed than non-over users.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child attachment. Over-users had lower mean score in mothers' attachment and father's attachment. Over-users had lower father's and mother's attachment than non-over users. This shows that they felt their parents attachment unstable.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presented abov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use of cellular phone and their parent-child rel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parent-education like communication training is necessary to prevent and lessen middle school students' overuse of cellular phone and to keep parent-child relation bette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휴대폰의 빠른 보급으로 이어져, 200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3,891만 명으로 국민의 약 80%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정보통신부, 2006). 이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은 약 480만 명으로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60% 이상이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하나의 문화로까지 자리매김한 휴대폰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기성세대에게 있어서 휴대폰의 용도가 전화 걸고 받기, 문자보내기 등이라면 청소년들에게는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 휴대폰은 자기표현의 매체이며 자신들의 문법을 만드는 도구이자 자신의 삶을 담은 또 다른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임진형, 2007). 이러한 휴대폰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단순한 통신편의를 위한 수단에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래 집단 간의 유대성을 강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나 게임을 통해 오락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지만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휴대폰의 이용은 학업적, 경제적, 건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적 장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곽민주, 2004).

특히, 청소년은 정체성이 불확실한 시기로 휴대폰이라는 매체를 사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에 의존하게 되고, 또한 자기개념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휴대폰 사용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수단으로 작

용하여 휴대폰 사용에 점점 더 몰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임경미, 2005). 게다가 휴대폰은 이동성(mobility)뿐만 아니라 개별성(individuality)과 비밀성(secret)의 특징을 가짐으로써 청소년의 선호를 증가시키는 등(김신동, 2001)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과다사용은 단일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휴대폰 과다사용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과다사용에 빠지기 쉬운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차미숙, 2006).

그 동안,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변인(부모-자녀 관계, 양육태도, 의사소통 양식, 애착, 친구관계, 학교적응, 학업성취도)과 개인 심리적 변인(충동성, 우울, 외로움,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스트레스)들을 연구한 여러 연구들(김용진, 2006; 이진영, 2006; 임진형, 2007; 차미숙, 2006; 최이순, 2007)에 의하면, 여러 변인 중에서 부모-자녀 관계 변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는 인간의 성장, 발달,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인간관계 중 가장 전면적이고, 보편적, 영구적인 인간관계이다(김재은, 1974). 또한 부모-자녀 관계가 유지, 지속되는 환경인 가정은 한 인간이 출생하여 갖게 되는 최초의 사회집단으로서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서화신, 2003), 청소년의 성장과 가장 관계가 깊은 변인 중 하나이다. 즉 부모가 청소년과 어떤 상호작용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자녀의 특성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관련한 문제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그 부모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Becker(1964)와 Schaefer(1965)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제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최이순, 2007, 재인용),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휴대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부모-자녀 관계라고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나은영, 2001; 이시형 등, 2002; 차미숙, 2006; 이진영, 2006). 또한 이진숙(2002)은 부모-자녀 관계를 언급하면서 자녀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을 부모와의 애착이라고 밝혔다.

부모-자녀 관계의 한 변인인 부모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선행연구(유성경, 2000; Wilson, 1987)에서 밝히고 있으며, 임진형(2007)과 김용진(2006)은 부모의 양육태도,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휴대폰 중독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라는 매체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심리적 불만은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다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변인으로 예측된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하며 태도, 생각, 사상 등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매개체이다(백경숙, 권용신, 2004). 이러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장해순, 강태완, 2005).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가 가정 내에서 별로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시되는 분위기라면 휴대폰에 의존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질 것이며, 가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했던 커뮤니케이션 욕구가 휴대폰을 통해 발산될 가능성이 있다(나은영, 2001). 따라서 전체적으로 평등대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더 낙관적인 생각을 하며, 사회성이 더 높고 휴대전화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이세용, 김선남, 배진한, 최병목, 2002). 실제로 최이순(2007)의 연구에서도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이 비과다사용 집단에 비하여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자녀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주는 부모관련 변인으로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들 수 있다. 휴대폰과 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애착 의존성과 애착 불안 차원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애착 친밀감 차원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장혜진, 2002). 차미숙(2006)은 애착과 관련된 외로움의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남자 청소년일수록 휴대폰에 중독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진영희(2002)는 자기 통제력, 부모 자녀 애착, 부모의 컴퓨터 게임에 대한 태도 중 부모 자녀 애착이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부·모 애착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휘정, 2007).

상술한 바와 같이 부모 자녀 간의 심리적 환경 및 가정환경은 휴대폰 과다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선행된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휴대폰 과다사용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특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강동진, 2005; 김정숙, 2003; 심란희, 2003; 이명희, 2006; 이영옥, 2006; 이진영, 2006; 장혜진, 2002; 차미숙, 2006).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특성들보다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관계 등의 객관적인 요인 및 친구관계나 교사태도 관계 등의 사회적 요인들에 대하여 연구(김용진, 2006; 이진영, 2006; 임진형, 2007; 차미숙, 2006)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과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기

존의 선행연구는 부모-자녀 관계를 부모의 양육태도(김용진, 2006)나 의사소통(이진영, 2006; 차미숙, 2006), 부모 애착(장혜진, 2002) 등의 한 변인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를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양식, 애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제까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부모를 종합한 형태나 어머니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김용진, 2006; 임형진, 2007; 정진태, 2003; 채진선, 2007)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양육태도 점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과 ‘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연구한 장미숙(2000)은 두 점수가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다. 애착에 관한 선행연구(이진숙, 2002; 채진선, 2007)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애착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녀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관계는 상이할 것이라 예측되어 부와 모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중학생들을 휴대폰 과다사용과 비과다사용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대한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문제

- 1)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라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 2-1)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라 부의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 2-2)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라 모의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 3)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양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 3-1)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라 부-자녀 간의 의사소통 양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 3-2)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라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양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 4)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라 부모-자녀 간 애착에는 차이가 있는가?
 - 4-1)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라 부-자녀 간 애착에는 차이가 있는가?
 - 4-2)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라 모-자녀 간 애착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 환경 중 가정의 과정환경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 가운데 하나이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함에 있어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특성으로서 인간 발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 관계를 부와 모의 양육태도, 부와 모의 애착척도, 부와 모의 의사소통 양식에 초점을 둔 부모-자녀 관계를 말한다.

나. 휴대폰 과다사용

본 연구에서는 휴대폰의 과도한 사용을 ‘중독’이라는 병리적인 용어로 규정하기보다는 ‘과다 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휴대폰 과다사용은 휴대폰에 대한 의존행동이 상대적으로 높아 겪게 되는 병리증상에서부터 휴대폰에 의존행동이 높아 일상생활 및 학업에서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휴대폰 중독 척도(장혜진, 2002)를 통해 총점이 상위 25%인 집단을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으로, 하위 25%인 집단을 비과다사용 집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자녀 관계

부모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며,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최초의 가장 중요한 교육자이다. 따라서 부모가 어떠한 태도로 자녀를 키우느냐 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정진태, 2003). 부모-자녀 관계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중 가정의 과정환경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 가운데 하나이며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고, 생물적이며 복잡한 심리, 사회적 관계이다(마은숙, 2000).

인간이 출생과 더불어 겪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유아기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혹은 양육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애착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이주언, 2005).

이제까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부모를 종합한 형태나 어머니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김용진, 2006; 임형진, 2007; 정진태, 2003; 채진선, 2007)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양육태도 점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과 ‘어머니-자

녀 간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연구한 장미숙(2000)은 두 점수가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다. 애착에 관한 선행연구(이진숙, 2002; 채진선, 2007)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애착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녀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관계는 상이할 것이라 예측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를 다루는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부모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애착을 중심으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부모의 양육태도

(1) 양육태도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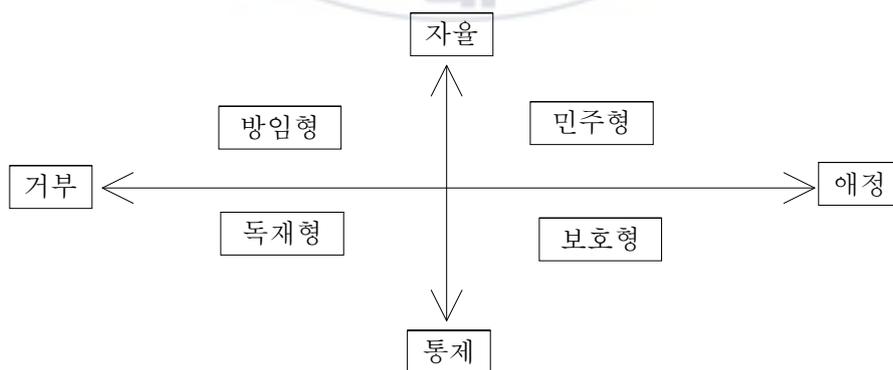
양육태도는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주제로서 여러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Fishbein(1975)은 '하나의 문화적 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양육태도를 정의하였고, 김재은(1974)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하며 부모의 관찰 가능한 행동과 자녀의 인식에 대한 반응 형태로 표명되어 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양육태도란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적·외적 태도나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인성과 행동은 이러한 양육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송설희, 1994; 한중혜, 1980).

(2) 양육태도의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학자에 따라 그 분류 방법이 각각 다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Symonds(193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두 가지 차원으로, Schaefer(1959)는 자율-통제, 애정-적대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Baumrind(1973)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유형에 중점을 두어 독재적인 태도(authoritarian control attitude), 허용적인 태도(permissive attitude), 권위있는 태도(authoritative attitude)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애정지향, 자율지향, 성취지향, 합리지향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김영숙(1988)은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 익애적 태도, 모순·불일치 태도로 분류하고 있다(정인, 2000, 재인용).

이렇듯 부모 양육태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지만 애정(수용)과 통제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Schaefer의 구분 방식에 따르고자 한다.

Schaefer는 부모의 양육 행동을 <그림 1>과 같이 두 개의 축, 즉 애정-거부의 축과, 자율-통제의 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

Schaefer의 구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 양육태도(애정-자율)는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로서, 이러한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 성장한 사람은 외향적·능동적·창조적·독립적·사교적이며, 사회 적응을 잘 하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적대감이 없다. 그러나 가정 외에서 잘 적응하는 아동들도 집에서는 양보하지 않거나 약간의 공격력과 고집을 보일 때가 있다.

둘째, 보호적 양육태도(애정-통제)는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엄격한 부모의 태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부모는 아동의 행동 범주를 결정하고 자녀의 어려움도 부모에 의해 극복된다고 믿으며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 좌절감을 느끼며 새로운 탐색을 제한함으로써, 습득의 기회를 축소시킨다. 이러한 양육태도 하에서 자라난 자녀는 애정-자율적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의존적이고, 사교성과 창조성이 적으며 인내심이 대단히 강하거나 약한 극단성을 보인다.

셋째, 방임적 양육태도(자율-거부)는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동시에 자녀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인데, 이러한 양육태도 안에서 자란 사람은 공격적이고, 자신의 행동조절을 잘하지 못하며 사회 부적응적 행동을 하게 된다.

넷째, 독재적 양육태도(거부-통제)는 자녀를 수용 및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태도이다. 또한 자녀에게 감정표현 등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부모에 대한 적대감정을 일으킨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 아래에서 양육된 아동은 불순종적이고 반항적이며 자기방어의 수단으로서 거짓말을 일삼게 된다(김용진, 2006, 재인용).

최근에는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부모 자신의 보고에 의존하기 보

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각이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더 자녀의 인성적, 행동적인 특성들과 관련된다고 논의되고 있는데(Schaefer, 1965), 이는 겉으로 보여지는 양육행동이나 실제적 양육태도보다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가 부모의 자녀관계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김애리, 1999,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도 부모 자신이 생각하는 양육태도가 아닌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여 살펴보았다.

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은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Thomas, 1997),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정보와 이해가 전달되어가는 과정으로써 사실이나 감정, 혹은 태도나 신념, 생각 등을 전달하는 것(조선화 등, 2004)을 말한다. 이 중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서로 간의 가치전달과 의사전달을 통해 내적 긴장의 완화, 관계 확인에 따른 자신감이나 안정감의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인성이나 행동 발달 등에 관계되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기존의 부모와 자녀 관계의 변화에 따른 갈등이나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써 주요한 기능을 한다(조은경, 1994)고 보고된 바 있다. 의사소통은 태도, 생각, 애정, 사상 등을 전달해 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가족을 보면 성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공통된 문제로 드러난다(Thomas, 1997).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가족 내 부모-자녀 의사

소통은 현대사회의 청소년의 일탈행동 중의 하나인 휴대폰 과다사용의 원인 변수가 될 수 있으리라 예측해 볼 수 있다.

(2) 의사소통의 유형

이러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에 관한 연구는 Mcleod와 Chaffee(1972)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을 개념지향적 의사소통과 사회지향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었는데 개념지향적 의사소통 방식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보살피 주고 토론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며 때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가장 적합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식이며, 사회지향적 의사소통 방식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들의 힘을 행사하고 자녀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의 무조건 순응을 요구함으로써 모든 가족원이 논쟁을 피하고 모두에게 합치되는 지향점을 추구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한편 Barns와 Olson(1982)은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CI)를 개발하고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개방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개방적 의사소통이란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감정이입과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해결 기술을 지닌 의사소통 유형이며, 역개방적 의사소통이란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이중속박 및 문제해결 기술이 낮은 의사소통 유형을 말한다. 그들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 애착

(1) 애착의 개념

Bowlby(1969)는 애착(Attachment)이란 ‘사람이 타인에게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성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Bretherton(1991)은 어떤 특정한 과 접촉하고 가까이 있으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 안전하게 애착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치있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는 내적 실행 모델을 형성하고, 타인 역시 사랑할 수 있고 책임감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새로운 사람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예상할 수 있으며, 타인의 관계에서 자기 가치감을 가질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양육자로부터 거부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하여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로 보고 자기 가치감을 느끼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예상하며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 받을 수도 있다(Bretherton, Bringen & Ridgeway, 1991).

애착은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관련된 개념으로 개인이 의미 있는 타인들과 애착을 발전시키면 그들의 기대에 민감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므로, 모든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강한 유대는 범죄와 비행, 중독의 주요 억제 요인이 된다(고성혜, 1994; 김두섭, 민수홍, 1996; 김준호, 김은경, 1995)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Hirschi(1969)와 일치하는데, Hirschi는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사랑, 존경, 애정과 같은 부모에 대한 심리적 유대가 형성되면, 그로 인해 비행의 유혹이 생겼을 때 머릿속에 부모가 심리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휴대폰 과다사용과 유사한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중독도 비행과 같은 하나의 일탈행위라 한다면 부모 자녀 애착 요인은 청소년 초기의 중독에 중요한 변인으로 예측되어 질 것이다(진영희, 2002).

(2) 청소년기의 부모 애착

청소년기의 애착은 영유아기의 애착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첫째 상대적으로 부모의 일방적 권위를 지니는 아동기의 애착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을 향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지며, 둘째 또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는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줄 수 있게 된다(심수정, 2003).

이 시기의 애착관계는 영아기나 아동기와는 달리 표면적인 애착행동이 감소하며, 적극적이고 목적적 활동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며(Allen, Hauser, Bell & O'Connor, 1994), 이러한 애착 행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인 방식에서 편지쓰기, 전화걸기 등의 심리적 양상으로 변화된다(Holmes, 1992). Bowlby(1973)는 애착을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애착 대상에의 접근 행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강도와 빈도에 있어 약해지지만 전화나 편지 등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해 애착 대상과의 안정감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로 성장함에 따라 부모에게 갖는 안정감은 부모의 존재 유무보다는 언제나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자기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기의 애착은 부모에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행동적인 면을 포함하는 긍정적인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청소년의 안전한 기지(secure base)로 남아 있다면 이들은 부모를 자신의 자율성 발달을 지지해 주고 도와주는 기반으로 인식하게 된다(윤승경, 1989; Kenny, 1987).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인지적·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Bretherton(1985)과 Weiss(1982)는 청소년기에는 애착의 행동적 차원이 감소하는 반면에 애착의 인지적·정서적

차원들은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을 밝혔다.

Peterson, Field와 Pryor(1994)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약화되며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 낮다고 보고하였다(장휘숙, 1997).

(3) 애착의 유형

Collins와 Read(1990)는 애착유형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3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진다. 이는 가까워짐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친밀성), 타인에게 의존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존 가능성), 버림받거나 사랑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불안)이다. Collins와 Read(1990)는 친밀, 의존, 불안 이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의존성과 친밀성 척도에서 높고 불안척도에서 낮은 경우 애착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애착 차원은 자아존중감, 표현성, 타인에 대한 신뢰, 인간 본성에 대한 신념, 사랑 유형과 관계된다고 하였다(장혜진, 2002, 재인용).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연구(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0) 결과에 의하면, 애착-의존과 애착-친밀은 자아존중감 점수와 정적상관을, 애착-불안은 자아존중감 점수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애착척도의 불안차원이 높을수록 자기 가치감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Feeney와 Noller(1990)은 애착 유형을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으로 나누었으며,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이 고독감, 흡연, 알코올 중독, 비정상적 성관계 등의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으며, 불안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나 헌신의 정도가 낮고 성인이 된 후에도 다른 두 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부모를 믿지 못하는 성향을

나타내어 대인신뢰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아동기 이후 애착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보면, 안정적인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며(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일수록 자신을 가치있게 여기고 사회 상황에서 보다 확신에 차 있고 자기 주장적이라고 한다(Collins & Read, 1990). 아울러 친밀감과 독립성 양자 모두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양자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이에 반해,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중요한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으로 구성되는 내적 표상을 형성하여 역기능적 신념과 낮은 자기 개념을 갖게 되고, 이것이 다시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obert, Gotlib & Kassel, 1996).

2. 휴대폰 과다사용

청소년은 정체성이 불확실한 시기로 휴대폰이라는 매체를 사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에 의존하게 되고, 또한 자기개념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휴대폰 사용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수단으로 사용한다(임경미, 2005).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은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며 자기표현의 매체이고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영역이다. 그러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휴대폰의 이용은 학업적, 경제적, 건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초래하고 있다(곽민주, 2004).

최근 몇 년 사이 휴대폰 사용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역기능이 발생하면

서 휴대폰 중독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였다. 그동안 휴대폰 중독에 관한 연구들(이명희, 2006; 이진영, 2006; 임경미, 2005; 임진형, 2007; 장혜진, 2002; 차미숙, 2006)에서는 휴대폰 중독에 대한 개념을 비교적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riffiths(1999)는 휴대폰 중독은 특정 행동에 의한 중독으로 휴대폰에 대한 의존 사용에의 내성이 생기어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고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과 초초를 경험하는 강박 경향이 있어서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아진다고 말하였다(김영순, 2004). 장혜진(2002)은 중독적 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이란 휴대폰이라는 매체에 접근한 후 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현실 생활에 병적 증상이나 문제 행동을 경험하는 정도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향성이라 정의하였다. 임진형(2007) 또한 휴대폰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정의는 휴대폰 중독이란 휴대폰 사용에 대한 강박과 금단, 휴대폰 사용통제의 어려움, 휴대폰에 대한 의존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상태로 휴대폰의 사용이 지나치게 많아져 휴대폰의 사용이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함과 방해를 받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덕호(2003)는 내성과 금단 증상을 동반한 휴대폰 사용을 ‘중독’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Goldberg(1997)의 인터넷 중독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김용진(2006)은 휴대폰 과다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저 단순히 사용시간 및 사용량에 있어서의 많음을 의미하기 보다는 휴대폰 사용에 있어서 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현실 생활에서 병적 증상이나 문제 행동을 경험하는 정도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김정숙(2003)은 휴대폰의 과도한 사용을 ‘과다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휴대

폰에 대한 의존행동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상생활 및 학업에서의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집단을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최이순(2007)은 절대적이거나 병리적인 중독 상태에서부터 중독에 이르지 않지만 휴대폰에 의존행동이 높아 일상생활 및 학업에서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휴대폰 과다사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밖에도 광민주(2004)는 휴대폰의 중독적 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최병목 등(2005)은 과다사용이나 중독과 동일한 개념으로 휴대전화 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차미숙(2006)은 휴대폰 과다사용으로 인해 의존, 내성의 경험과 함께 일상생활의 역할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이를 스스로 조절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정의한 휴대폰중독 위험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휴대폰 과다사용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념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폰 중독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의학적인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휴대폰 중독 척도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 과다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휴대폰 과다사용은 휴대폰에 대한 의존행동이 상대적으로 높아 겪게 되는 병리증상에서부터 휴대폰에 의존행동이 높아 일상생활 및 학업에서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용되어진 글의 경우에는 휴대폰 중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3. 부모 자녀 관계와 휴대폰 과다사용의 관계

부모-자녀 관계와 휴대폰 과다사용과의 관계를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애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폰 과다사용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김정숙(2003)은 사회경제적 조건 가운데 ‘휴대폰 사용 요금으로 인한 부모의 꾸지람’, ‘나에 대한 엄마의 존중감’ 등이 휴대폰 중독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진영(2006)은 가정의 경제력이 낮은 집단에서의 휴대폰 중독 평균이 경제력이 높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휴대폰 과다사용 측면에 있어서 김선남과 김현옥(2004)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부모의 꾸지람은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을 억제하는 요인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합리적 설명 양육태도의 부모가 비합리적 설명 양육태도의 부모보다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다사용을 억제하며, 과잉기대적 양육태도, 학대적 양육태도와 방임적 양육태도는 외로움을 느끼는 남자청소년에게 휴대폰중독 위험성을 가중시킨다(차미숙, 2006)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차이에서 과다 사용자와 비과다 사용자들 사이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경우에는 비과다 사용자들이 과다 사용자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민주적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과다 사용자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독재형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김용진, 2006). 임진형(2007)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이고 통제적으로 느낄수록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으며, 최이순(2007) 또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휴대폰 과다사용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둘째,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나은영(2001)은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했던 커뮤니케이션 욕구가 이동전화를 통해 발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시형 등(2002)은 가정에서의 평등한 대화와 휴대전화의 바람직한 사용이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휴대폰 과다 사용 집단이 비과다사용 집단에 비하여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부정적이며(차미숙, 2006; 최이순, 2007)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변인과 개인 심리적 변인 중에서 부모-자녀 관계로 정의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고 하였다(이진영, 2006). 즉,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인 집단의 휴대폰 중독 평균이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하고 의사소통이 기능적인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휴대폰과 비슷한 맥락을 보이는 인터넷 중독 연구에 있어서도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낮았다(김기리, 2007; 김미정, 2003; 박시혜, 2002)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 때 휴대폰에 집착하여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부모와의 애착관계 차원에서도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애착 의존성과 애착 불안 차원에서는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애착 친밀감 차원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장혜진, 2002). 차미숙(2006)은 애착과 관련된 외로움의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남자 청소년일수록 휴대폰에 중독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정, 2007). 진영희(2002)는 자기 통제력, 부모 자녀 애착, 부모의 컴퓨터 게임에 대한 태도 중 부모 자녀 애착이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부·모 애착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정, 2007).

상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이 단순히 개인 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자녀 간의 심리적 환경 및 가정환경은 중요한 휴대폰 과다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자율적이고 애정적으로 지각하는가, 통제적이고 적대적으로 지각하는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긍정적이며 기능적인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인가에 따라서 휴대폰의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 양육태도가 통제적이고 적대적일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형이고 폐쇄적일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하고 낮을수록 휴대폰 과다사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중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를 밝혀내기 위하여 선정된 연구대상 및 연구에 사용된 도구, 연구절차, 그리고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교(남자중학교 1개교, 여자중학교 1개교, 남녀공학 1개교), 2년생들을 대상으로 총 388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검사지의 응답이 불성실한 36명을 제외한 352명이 피험자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분이라도 없는 피험자의 자료는 배제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 및 학교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성별 및 학교별 현황(N=352)

성별	학교			계(%)
	S중학교	K여자중학교	B중학교	
남	90		70	45.5
여		93	99	54.5
계(%)	25.6	26.4	48.0	100

2. 연구절차 및 도구

가. 측정도구

(1)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aefer의 이론에 기초하여 이종승·오성심(1982)이 제작한 것을 노호은(2001)이 수정, 사용한 설문지를 일부 수정하였다. 설문지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2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25점 이상) ‘애정-적대’의 영역에서는 더 애정적이며, ‘자율-통제’의 영역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25점 이상) 자율을 더 허용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각 하위 척도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애정-적대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해 수용적, 헌신적이며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언제라도 부모가 자녀의 고민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며, 적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를 무시하고 거부하며 무관심하고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고, 비난과 체벌을 자주 사용하고 자녀의 단점을 강조한다고 여기는 태도를 말한다.

(나) 자율-통제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의견이나 권리를 존중하며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 민주적인 태도와 가능한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책임을 지는 습관을 길러주는 태도이며, 통제적인 태도는

부모의 권위만을 강조하고 통제적이며 엄격하고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자녀에 대해 간섭이 심하고 설명이나 설득보다 즉각적이고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태도를 말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각 하위 척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부모 양육태도 척도

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신뢰도	
			부	모
애정-적대	10	1,3,6,8,10,12,14,16,17,18	.75	.77
자율-통제	10	2,4,5,7,9,11,13,15,19,20	.57	.55
			.80	.82

*역채점 문항 : 부-3,8,16,18,2,9,13,20 모-3,8,16,18,2,9,13,20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2, 7, 15번 문항은 삭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부 양육태도는 .80, 모 양육태도는 .82이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애정-적대(10문항) 척도와 자율-통제(10문항) 척도의 두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중학생들의 지각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부모가 애정적이며 자율적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신의 부모가 적대적이고 통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의사소통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과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Olson과 Barnes(1982)가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인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민혜영(1990)이 번안한 것을 부모의 의사소통 양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10문항)와 역개방적 의사소통 척도(10문항)의 두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는 부모 혹은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보다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고, 역개방적 의사소통 척도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Likert식 5점 척도로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며, 역개방적 의사소통 척도는 이와 반대로 ‘매우 그렇다’에 1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을 준다. 총 점수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기능적이고 부모 자녀 관계가 원만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모 의사소통 척도 .86, 부 의사소통 척도 .86이었다. 의사소통 척도의 하위 요인은 <표 3>과 같다.

<표 3> 부모 의사소통 척도

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신뢰도	
			부	모
개방적의사소통 척도	10	1,3,6,7,8,9,13,14,16,17	.86	.86
역 개방적의사소통 척도	10	2,4,5,10,11,12,15,18,19,20	.74	.73
			.86	.86

*역채점 문항 : 부-2,4,5,10,11,12,15,18,19,20 모-2,4,5,10,11,12,15,18,19,20

(3) 부모와의 청소년기 애착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10~20세를 대상으로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부모 애착, 또래 애착척도로 구성된 원척도를 수정하여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IPPA-R은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IPPA와 차이가 있다. 첫째, '부모에 대한 애착' 대신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둘째, 28문항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나 자신밖에 의지할 수 없다', '요즘 나는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의 3문항을 삭제하여 문항수가 25문항으로 감소되었다. 셋째, 신뢰감과 의사소통 요인의 합산 점수에서 소외감 요인의 점수를 감하여 계산되던 애착 점수의 산출 방식이 부정적인 표현의 문항들을 역산한 후 모든 문항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IPPA-R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Bowlby가 제안한 애착 인물에 대한 정서의 질적 특징이나 차이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으며 유의미한 애착 인물에 대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IPPA-R은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3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진다.

신뢰감은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나의 판단을 믿어주며 아버지, 어머니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지를 묻는 문항이다. 의사소통은 아버지, 어머니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에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이를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지에 관해 묻는 문항이다. 소외감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집이나 학교에서 나에게 관심

이 없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좌절이나 침체 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와 모에 대한 애착척도는 부, 모 같은 내용으로 각각 25문항이며 각 하위 차원별 문항 수는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 6문항이다. 문항형식은 5점 Likert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 모와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됨을 의미한다.

옥정(1998)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용하였을 때 이 척도의 *Cronbach's a*는 부 애착척도 .93, 모 애착척도가 .92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부와 모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에 대한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는 부 애착척도 .90, 모 애착척도 .90으로 나타났다. 애착 측정도구의 3개 하위 요인에 대한 문항은 <표 4>와 같다.

<표 4> IPRA-R의 구성

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신뢰도	
			부	모
신뢰감	10	2,3,4,5,9,13,17,20,22,24	.83	.82
의사소통	9	1,6,7,12,15,16,19,21,25	.84	.85
소외감	6	8,10,11,14,18,23	.60	.60
			.90	.90

*역채점 문항 : 부-3,6,8,9,10,11,14,17,18,23 모-3,6,8,9,10,11,14,17,18,23

(4) 휴대폰 과다사용 척도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Young (1996)의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를 참고하여 장혜진 (2002)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장혜진(2002)은 Young의 척도에서 인터넷이라는 용어 대신 휴대폰으로 문항을 수정한 15문항과 Goldberg(1996)

의 중독진단 기준에 근거한 10문항을 선정하여 총 25문항을 제작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요인을 크게 세 가지 강박적·금단적 현상, 사용통제의 어려움, 의존적 성향으로 하여, 최종 20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으로 이루어진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은 20점에서 100점 사이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과다사용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상위 25%와 하위 25%로 구분하여 각각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과 비과다사용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다.

휴대폰 과다사용의 각 하위 척도는 <표 5>와 같다.

<표 5> 휴대폰 과다사용 검사의 하위 요인별 내용

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신뢰도
강박적·금단적 증상	11	4,5,7,8,9,12,13,15,16,19,20	.85
사용통제의 어려움	6	1,2,3,6,10,11	.84
의존적 성향	3	14,17,18	.63
			.91

나.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08년 2월 15일부터 2월 21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각 대상 학급의 담당교사에게 검사방법과 주의사항 및 검사시간을 알려 주고 대상

학생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척도별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다각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인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휴대폰 과다사용 실태에 관하여 과다사용 집단과 비과다사용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Crosstabs)을 실시하였다.

넷째,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과 비과다사용 집단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인구학적 특성과 휴대폰 첫 사용 시기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여학생이 192명(54.5%)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적은 중위권이 113명(32.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상위권 100명(28.4%), 상위권 54명(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생활 소득 수준 또한 ‘중’에 응답한 학생이 178명(5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상’에 응답한 학생이 107명(30.4%), ‘상’에 응답한 학생이 43명(12.2%)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사항에 있어서 334명(94.9%)의 학생이 부모님과 동거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의 학력수준은 대학 및 대학원 이상이 아버지 218명(61.9%), 어머니 201명(57.1%)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 각각 92명(26.1%), 106명(30.1%) 등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352)

변수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학교	남자중학교	90	25.6
	여자중학교	93	48.0
	남녀공학	169	26.4

성별	남	160	45.5
	여	192	54.5
성적	상	54	15.3
	중상	100	28.4
	중	113	32.1
	중하	48	13.6
	하	35	9.9
	미응답	2	0.6
가정의 생활(소득)수준	상	43	12.2
	중상	107	30.4
	중	178	50.6
	중하	20	5.7
	하	4	1.1
가족 거주 사항	부모님과 동거 자취 및 하숙	334	94.9
	부모님 이외의 가족 및 친척과 동거	1	0.3
	기타	13	3.7
	미응답	3	0.9
		1	0.3
아버지의 학력	중졸 이하	10	2.8
	고졸	92	26.1
	전문대 및 2년제 졸	24	6.8
	대학 및 대학원 이상	218	61.9
	미응답	8	2.3
어머니의 학력	중졸 이하	9	2.6
	고졸	106	30.1
	전문대 및 2년제 졸	28	8.0
	대학 및 대학원 이상	201	57.1
	미응답	8	2.3
합계		352	100

나. 조사대상자의 휴대폰 첫 사용 시기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2학년생들의 휴대폰 첫 사용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 136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 118명(33.5%)의 분포를 보여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휴대폰 첫 사용 시기는 대부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조사대상자의 휴대폰 첫 사용 시기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휴대폰 처음 사용 시기	초등 3학년 이전	11	3.1
	초등 4학년	18	5.1
	초등 5학년	39	11.1
	초등 6학년	118	33.5
	중학교 1학년	136	38.6
	중학교 2학년	30	8.5
합계		352	100

2. 휴대폰 사용 집단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

가. 휴대폰 과다 사용에 대한 차이

휴대폰 과다사용 질문지를 사용하여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은 조사대상자

의 총점의 상위 25%, 휴대폰 비과다사용 집단은 총점의 하위 25%로 제한하였다. 휴대폰 과다사용 정도에 대한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6.80, p<.001$). 과다사용 집단의 휴대폰 사용 정도의 평균은 63.58점(± 9.17)이었고, 비과다사용 집단은 26.68점(± 3.74)으로 과다사용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휴대폰 과다사용·비과다사용 집단 간 휴대폰 사용 정도의 차이

변인	과다사용집단(n=95)	비과다사용집단(n=98)	t
	$M(SD)$	$M(SD)$	
휴대폰 과다사용 총점	63.58(9.17)	26.68(3.74)	-36.80***

*** $p < .001$

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휴대폰 과다사용·비과다사용 집단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과 비과다사용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와 같이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은 학교, 성별, 성적, 거주상황, 부모의 학력, 휴대폰 첫 사용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과 비과다사용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9> 휴대폰 과다사용·비과다사용 집단 간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인구학적 특성		비과다사용 집단 n (%)	과다사용 집단 n (%)	$\chi^2(df)$
학교	남중	24(6.8)	15(4.3)	7.04(4)
	남녀공학	40(11.4)	53(15.1)	
	여중	24(6.8)	22(6.3)	
성별	남	35(9.9)	38(10.8)	2.98(2)
	여	53(15.1)	52(14.8)	
성적	상	17(4.8)	14(4.0)	9.67(10)
	중상	28(8.0)	20(5.7)	
	중	24(6.8)	28(8.0)	
	중하	12(3.4)	14(4.0)	
	하	6(1.7)	14(4.0)	
	미응답	1(0.3)	0(0)	
소득수준	상	9(2.6)	19(5.4)	18.19(8)*
	중상	25(7.1)	27(7.7)	
	중	43(12.2)	37(10.5)	
	중하	9(2.6)	6(1.7)	
	하	2(0.6)	1(0.3)	
거주상황	부모님과 동거	83(23.6)	85(24.1)	10.19(8)
	자취 및 하숙	0(0)	1(0.3)	
	친척과 동거	5(1.4)	3(0.9)	
	기타	0(0)	0(0)	
	미응답	0(0)	1(0.3)	
부학력	중졸이하	2(0.6)	3(0.9)	6.75(8)
	고졸	25(7.1)	23(6.5)	
	전문대 및 2년제졸	6(1.7)	4(1.1)	
	대학 및 대학원 이상	55(15.6)	59(16.8)	
	미응답	0(0)	1(0.3)	

	중졸이하	5(1.4)	2(0.6)	
	고졸	28(8.0)	29(8.2)	
모학력	전문대 및 2년제졸	8(2.3)	6(1.7)	10.81(8)
	대학 및 대학원 이상	57(16.2)	57(16.2)	
	미응답	0(0)	1(0.3)	
	초3 이전	2(0.6)	5(1.4)	
	초4	4(1.1)	8(2.3)	
휴대폰	초5	8(2.3)	13(3.7)	15.03(10)
첫 사용 시기	초6	32(9.1)	31(8.8)	
	중1	31(8.8)	31(8.8)	
	중2	11(3.1)	2(0.6)	

나. 휴대폰 사용집단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과 비과다사용 집단의 부모-자녀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 양육태도, 부·모 의사소통 양식, 부·모 애착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1) 휴대폰 과다사용·비과다사용 집단 간 양육태도의 차이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과 비과다사용 집단 간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 자율-통제 $t=4.06$, $p<.001$, 모 자율-통제 $t=4.61$, $p<.001$, 부 애정-적대 $t=2.87$, $p<.01$, 모 애정-적대 $t=3.02$, $p<.01$). 즉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이 비과다사용 집단에 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적대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대폰 비과다사용 집단은 과다

사용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이며 자율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휴대폰 과다사용·비과다사용 집단 간 양육태도의 차이

변인	비과다사용집단(n=88) 과다사용집단(n=90)		t	
	M(SD)	M(SD)		
부애정-적대	35.45(6.80)	32.49(6.99)	2.87**	
양육 태도	모애정-적대	37.22(7.05)	34.00(7.18)	3.02**
	부자율-통제	24.41(4.38)	21.92(3.76)	4.06***
	모자율-통제	24.81(4.41)	21.99(3.73)	4.61***

** $p < .01$, *** $p < .001$

(2) 휴대폰 과다사용·비과다사용 집단 간 의사소통 양식의 차이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과 비과다사용 집단 간 의사소통 양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1>에서와 같이 의사소통 2개의 하위 척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부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 $t=2.46$, $p<.05$, 모 개방적 의사소통척도 $t=2.09$, $p<.05$, 부 역개방적 의사소통 척도 $t=4.97$, $p<.001$, 모 역개방적 의사소통 척도 $t=5.44$, $p<.001$). 즉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이 비과다사용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역기능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1> 휴대폰 과다사용·비과다사용 집단 간 의사소통 양식의 차이

변인	비과다사용집단(n=88)	과다사용집단(n=90)	t	
	M(SD)	M(SD)		
부개방적의사소통척도	32.02(9.06)	28.86(8.12)	2.46*	
의 사 소 통	모개방적의사소통척도	31.69(7.99)	29.26(7.60)	2.09*
	부역개방적의사소통척도	32.05(6.15)	27.34(6.46)	4.97***
	모역개방적의사소통척도	32.02(6.19)	26.86(6.48)	5.44***

* $p < .05$, *** $p < .001$

(3) 휴대폰 과다사용·비과다사용 집단 간 애착의 차이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과 비과다사용 집단 간의 애착의 3차원(신뢰도, 의사소통, 소외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12>와 같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차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 신뢰 $t=3.24$, $p < .01$, 모 신뢰 $t=3.31$, $p < .01$, 부 의사소통 $t=2.05$, $p < .05$, 부 소외감 $t=3.89$, $p < .001$ 모 소외감 $t=4.65$, $p < .001$). 즉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은 비과다사용 집단에 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신뢰도와 소외감이 낮은, 애착이 불안정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휴대폰 과다사용 · 비과다사용 집단 간 애착의 차이

변인	비과다사용집단(n=88) 과다사용집단(n=90)		t	
	M(SD)	M(SD)		
부신뢰감	36.57(7.76)	32.91(7.32)	3.24**	
모신뢰감	38.11(7.50)	34.65(7.48)	3.31**	
애착 척도	부의사소통	30.44(7.43)	28.33(6.81)	2.05*
	모의사소통	31.69(7.63)	30.24(6.72)	1.50
부소외감	19.75(4.44)	17.37(3.58)	3.89***	
모소외감	20.58(4.53)	17.71(3.54)	4.65***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를 밝혀내어 자녀들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대한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라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양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넷째,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라 부모-자녀 간 애착에는 차이가 있는가?

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3개 중학교(남중 1개교, 여중 1개교, 남녀공학 1개교)를 표집하여 현재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중학교 2년생 총 35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처리 방법으로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 독립 t 검정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은 남학생 160명(45.5%), 여학생 192명

(54.5%), 성적은 중위권 113명(32.1%), 중상위권 100명(28.4%), 상위권 54명(15.3%), 생활 소득 수준은 ‘중’ 178명(50.6%), ‘중상’ 107명(30.4%), ‘상’이 43명(12.2%), 거주사항은 334명(94.9%)의 학생이 부모님과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수준은 대학 및 대학원 이상이 아버지 218명(61.9%), 어머니 201명(57.1%)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 각각 92명(26.1%), 106명(30.1%) 등의 순이었으며, 조사대상자들의 휴대폰 첫 사용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 136명(38.5%), 초등학교 6학년이 118명(33.5%)이었다. 본 연구의 중학교 2학년의 72%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휴대폰을 처음 사용하는 연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양심영과 박영선(2005)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차미숙(2006)은 대상자의 대부분이 중학생이 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한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 대상자들의 52.9%가 초등학교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 시기가 점차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기존연구(양경숙, 2005; 이시형 등, 2002; 차미숙, 2006)를 뒷받침 해준다.

둘째, 휴대폰 사용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 결과, 두 집단은 학교, 성별, 성적, 부모님 생존 여부, 거주상황, 부모의 학력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폰 중독점수가 여학생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었던 보고(이영옥, 2006; 임경미, 2005; 차미숙, 2006)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장혜진, 2002; 강동진, 2005)와는 일치한다. 휴대폰 과다사용의 변인으로 학교 성적(이진영, 2006; 장혜진, 2002)에 따라 휴대폰 과다사용의 가능성이 높

다고 하는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두 집단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료를 많이 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류층에 속한다고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휴대폰 중독 성향이 높아진다는 연구(임진형, 2007; 이진영, 2006)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폰의 과다사용이 성별 및 성적 등 변인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에게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가정의 경제 수준이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과다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휴대폰 사용 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의 중학생들이 휴대폰을 과다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나. 휴대폰 사용 집단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과 비과다사용 집단 간의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부모-자녀 관계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양육태도, 애착은 부모 모두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이 비과다사용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역개방적이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적이고 적대적으로 지각하며 부모에 대한 신뢰도와 소외감이 낮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양육태도 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휴대폰 과다사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김정숙, 2003; 차미숙, 2006; 최이순, 2007)와 일치하여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휴대폰 과다사용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즉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인 태도보다는 적대적 태도,

자율적인 태도보다는 통제적인 태도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의 교육에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자녀의 지나친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자녀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기 보다는 간섭과 통제, 엄격한 제한과 복종을 요구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보면 휴대폰은 친구나 가족관계의 상호의사소통에서 빼놓을 없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사소통의 결과는 부모-자녀 간의 문제형 의사소통 방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휴대폰 중독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이진영, 2006; 차미숙, 2006; 최이순, 2007)의 결과와 일치하며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했던 커뮤니케이션 욕구가 휴대폰을 통해 발산된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나은영, 2001; 이시형, 200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자녀 간의 기능적·긍정적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를 이루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기존연구(김오남, 김경신, 1994; 박정은, 2001; 이세용, 2000; 이진숙, 200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휴대폰의 성능 및 기술향상과 더불어 점점 휴대폰의 사용이 단순한 통화 수단을 넘어 인터넷, 문자 전송, 카메라, MP3 기능 등이 추가되었으나 여전히 휴대폰의 기능은 의사소통의 상호교환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내의 역기능적·폐쇄적 의사소통과 충분한 의사소통에 대한 갈증은 휴대폰 과다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부모와의 애착 면에서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에 비하여 비과다사용 집단이 부모에게 걱정거리를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으며 아버지, 어머니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집이나 학교에서 관심과 이해를 받고 있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는 또래관계에서 소외당하고 사랑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휴대폰 중독에 설명력을 가진다는 장혜진(2002)의 연구를 지지하며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휴대폰 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차미숙(2006) 연구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으며, 외롭지 않고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연구(박순천, 백경임, 2004)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와의 소외감으로 인하여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이 클수록 휴대폰에 의존하여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는 애착 대상을 구하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만큼 휴대폰을 통하여 신뢰할만한 애착 대상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과 비과다사용 집단 모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안정적이라는 Peterson, Field와 Pryor(1994)와 장휘숙(1997)의 연구와 일치한다.

2. 결론 및 제언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은 비과다사용 집단에 비하여 생활소득 수준에 따라 휴대폰 사용 정도가 높은 집단이다.

둘째,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은 비과다사용 집단에 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적이고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집단이다.

셋째,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은 비과다사용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

모와의 의사소통이 역개방적이며 폐쇄적이다.

넷째,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은 비과다사용 집단에 비하여 부모에 대한 신뢰도와 소외감이 낮은 집단으로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집단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 부모-자녀 관계의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나 개인의 특성 및 교우 관계, 학교 환경 등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생존해 계시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 변인들에 대한 척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통계처리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리라 본다.

또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은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연결시켜주고,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형성시켜 주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충분한 의사소통 욕구가 해소되지 않거나, 자녀와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다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부모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같은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양식이며, 더 나아가 교사의 의사소통 양식 또한 청소년과의 갈등 요인은 아닌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관계만을 다루었고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여 부모와 자녀의 일치도, 지각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면 더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동진(2005). 내외통제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휴대폰의 과다사용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 연구, Vol(18)**.
- 곽민주(2004).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 실태와 중독적 이용.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리(2007).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두섭,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 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미정(2003).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남, 김현욱(2004).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8(4)**, 88-116.
-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2000). 애착 유형에 따른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 김신동(2001). 호코텔레포니쿠스의 등장, 이동전화 확산에 요인을 준 사회문화적 요인 연구. **한국언론학보, 45(2)**, 62-85.
- 김애리(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배려가 자녀의 시험불안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순(2004). 고등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성숙도와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오남, 김경신(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 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2(3), 106-119.
- 김용진(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휴대폰 과다사용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집단성격과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2003). **휴대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 충동성**.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희정(2007). **청소년의 애착 및 방어기제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영(2001). 이동전화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전화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적 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4), 189-228.
- 노호은(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은숙(2000). **중학생의 부모-자녀관계,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관한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덕호(200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중독증과의 관계;인터넷 휴대폰 중독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천, 백경임(2004).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의 MMPI 특성. **대한가**

정학회지, 42(9), 135-147.

- 박시혜(2002).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부모-자녀의 사소통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및 영향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숙, 권용신(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9(2), 87-99.
- 서화신(2003). 부모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설희(1994). 가족모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란희(2003). 인터넷중독과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의 관련성.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수정(2003). 중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경숙(2005).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와 태도분석.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심영, 박영선(2005).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성향의 예측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43(4), 1-16.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노트. 서울: 서울행동과학연구소.
- 옥 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성경(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비행수준별·유형별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

상담원

- 윤승경(1989). 청소년기 자녀의 애착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희(2006).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충동성, 심리적 안녕감, 자존감, 불안, 우울 등.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세용(2000).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건강연구소.
-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이세용, 김선남, 배진한, 최병목(2002).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영옥(2006).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언(2005).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개념 및 사회성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02).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이진영(2006).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변인과 개인 심리적 변인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미(2005).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진형(2007).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숙(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명지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해순, 강태완(2005). 스피치 교육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9(1), 163-192
- 장혜진(2002).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숙(1997).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Ⅱ): 대처방식의 중재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발달**, 13(3), 141-157.
- 정보통신부(2006). 주요IT통계현황(2006년 3월 기준).
- 정 인(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태(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화, 김혜진, 이영나, 이지향, 조유진, 허미선(2004). **인간관계의 이해**. 서울: 교문사.
- 조은경(1994). 가족의 커뮤니케이션과 권력에 관한 기능적 이론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79-81.
- 진영희(2002). **부모 자녀 애착 및 부모의 컴퓨터 게임에 대한 태도, 자기통제력이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미숙(2006). **외로움이 청소년의 휴대폰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진선(2007).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청소년기 애착이 이성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목, 조규영, 연화준, 정무환(2005).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조사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연구보고서(05-08).

- 최이순(2007). 청소년의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en, J. P., Hauser, S. T., Eickholt, C., Bell, K. L., & O'Connor, T. G. (1994). Autonomy and relatedness in 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expressions of negative adolescent aff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 535-552.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rn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H. Olson, H. I. Mccubbin, H. Barn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pp. 33-48)*.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 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owlby, J. (1969). *Attachment: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 theory and research(pp.3-3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Bretherton, I., Bringen, Z., & Ridgeway, D. (1991). The Parental Side of Attachment. In K. Pillemer, & K. McCatney (Eds.),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pp.1-24). NJ:LEA.
- Feeney, A. J.,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2), 281-291.
- Fishbein, M. (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 Addison-Wesley.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rider.edu/suler/psycyber/supportgp.html>.
- Griffiths, M. (1999). Internet Addiction. *The Psychologist*, 12(5), 245-250.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irschi, T. (1969). *The Cause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lmes, J. (1992).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London and New York : Routededge.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No. 1. 17-29.

- Mcleod, J. M., Atkin, C. K., & Chaffee, S. H. (1972). Adolescents, parents, and television use; adolescent self-report from Maryland and Wisconsin samples. In G. A. Comstock and E. A. Rubinstein(Eds.) *Television and Social Behavior*(3).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Pe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579-600.
- Robert, Gotlib & Kassel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10-320.
- Schaefer, E. S. (1965). A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Vol. 36. No. 2.
- Thomas, E. J. (1977).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The Free Press.
- Weiss, R. S.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 M. Parkes & Stevenson-Hinde, J.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177-184. New York: Basic Books.
- Wilson, H. (1987). Parental supervision re-examined.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7, 275-301.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s.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 237-244.

<부 록> 설문지

<부록 1> 휴대폰 사용에 관한 설문지

<부록 2> 휴대폰 과다 사용 설문지

<부록 3> 의사소통 척도 설문지

<부록 4> 부모 양육 태도 설문지

<부록 5> 부모 애착 척도 설문지

【휴대폰 사용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휴대폰 사용과 부모님의 관계 등에 관련된 연구를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설문지 내용은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솔직히 응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 누구에게도 비밀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 모르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 문제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설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8월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과

지도교수 황희숙

연구자 송진숙 드림

다음 문항은 통계자료 처리에 필요한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명 : 학교 학년

2. 성 별 : 남/여

3. 학급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4. 가정의 생활(소득) 수준은 어떻습니까?

-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5. 부모님의 생존 여부는 어떻습니까?

- ① 두 분 모두 살아계심 ② 어머니만 살아계심
③ 아버지만 살아계심 ④ 두 분 모두 돌아가심

6. 현재 여러분의 거주 사항은 어떻습니까?

- ① 부모님과 동거 ② 자취 및 하숙
③ 부모님 이외의 가족 및 친척과 동거 ④ 기타()

7.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및 2년제졸 ④ 대학 및 대학원 이상

8.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및 2년제졸 ④ 대학 및 대학원 이상

부록 2

【휴대폰 과다사용 척도】

다음은 여러분의 휴대폰 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고 여러분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사용은 통화, 문자, 게임, 음악듣기, 무선인터넷 등 모든 기능을 포함합니다.

번호	질문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다.	⑤	④	③	②	①
2	휴대폰 사용에 시간을 보내느라 다른 일을 소홀히 한다.	⑤	④	③	②	①
3	내가 휴대폰 사용에 시간을 보내는 것 때문에 주위사람들이 불평을 한다.	⑤	④	③	②	①
4	휴대폰을 사용(문자, 통화, 게임 등)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성적이나 숙제,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⑤	④	③	②	①
5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전화 또는 문자가 왔는지를 확인한다.	⑤	④	③	②	①
6	휴대폰 사용 때문에 학교 수업이 소홀해지고 성적이 떨어졌다.	⑤	④	③	②	①
7	휴대폰이 없다면 내 인생은 공허(텅빈 것)하고 재미가 없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8	휴대폰을 사용할 때 누가 방해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막 화를 낸다.	⑤	④	③	②	①
9	밤새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잠을 못 잔 적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10	휴대폰을 사용할 때 '조금만 더 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한다.	⑤	④	③	②	①
11	휴대폰에 오랜 매달려 있는 것을 그만 두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12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분이 우울하고 울적해지거나, 불안해지고 신경이 날카롭게 된다. 그래서 다시 휴대폰을 사용한다.	⑤	④	③	②	①
13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를 주고받는 경험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14	단지 기분전환을 위해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15	가족과 있는 것보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즐겁다.	⑤	④	③	②	①
16	예상보다 2-3배 많은 사용료(한 달 요금)를 낸 적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17	휴대폰 사용에 대한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일상사의 괴로운 생각을 잊는다.	⑤	④	③	②	①
18	휴대폰을 쓰고 나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게 된다.	⑤	④	③	②	①
19	휴대폰 사용 불가(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 있으면 왠지 불안하다.	⑤	④	③	②	①
20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중요한 전화나 문자가 올까 하는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하다.	⑤	④	③	②	①

부록 3

【의사소통 척도】

다음은 여러분과 부모님의 의사소통 척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을 잘 읽고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어머니가 안 계신 경우에는 아버지/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을 답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질문내용	아버지					어머니				
		매우 그렇다	대체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체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2	때때로 아버지(어머니)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3	아버지(어머니)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4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때때로 조심스럽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5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아버지(어머니)께서는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아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8	내게 고민거리가 생기면 아버지(어머니)와 의논한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9	아버지(어머니)에 대한 나의 감정을 아버지(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0	아버지(어머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종종 아버지(어머니)와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1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2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3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아버지(어머니)께서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4	아버지(어머니)께서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5	아버지(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애야깃거리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6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7	나의 속마음을 아버지(어머니)께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8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9	아버지(어머니)께서는 나에게 화내거나 꾸중하실 때 나는 모욕감을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20	어떤 일에 대해 나는 솔직한 감정을 아버지(어머니)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부록 4

【부모 양육 태도 척도】

다음은 여러분 아버지/어머니께서 평소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어머니가 안 계신 경우에는 아버지/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을 답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질문 내용	아버지					어머니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다정하게 자주 이야기를 하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2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물건까지도 전부 사다 주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3	내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 아버지(어머니)는 싫어하시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4	아버지(어머니)는 “자기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5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어머니)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아버지(어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오락회를 열거나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7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말과 행동에 별로 간섭하지 않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8	아버지(어머니)는 내 말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9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나에게 대한 일을 아버지(어머니)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0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1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일을 나 스스로 직접 결정하도록 맡겨주시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2	내가 질문을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아시는 데까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애쓴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3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할 때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4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아버지(어머니)는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5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아버지(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6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우선 화부터 내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7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거의 허락해 주시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8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9	아버지(어머니)는 공부나 집안일을 돕는 것 등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기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20	아버지(어머니)는 가끔 정당하지 못한 명령을 무조건 그대로 따르라고 하시는 일이 많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부록 5

【부모 애착 척도】

다음은 여러분 아버지/어머니께서 평소 여러분에게 대해주시는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어머니가 안 계신 경우에는 아버지/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을 답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질문내용	아버지					어머니				
		매우 그렇다	대체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 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체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 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아버지(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2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부모로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3	나는 현재의 아버지(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어머니)였으면 하고 바란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4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5	걱정거리가 있을 때 아버지(어머니)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아버지(어머니)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쓸모없는 일이라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7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무엇인가에 기분이 상해 있을 때 금방 알아채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8	아버지(어머니)와 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느껴진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9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대해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0	나는 아버지(어머니) 곁에 있으면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아버지(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속상해 한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2	토론이나 대화할 때 아버지(어머니)는 내 의견을 생각해 보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3	아버지(어머니)는 내 결정을 믿어주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4	아버지(어머니)도 아버지(어머니)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내 문제로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5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나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6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내 걱정거리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7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화가 난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8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9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20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주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21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22	나는 우리 아버지(어머니)를 믿는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23	아버지(어머니)는 요즘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24	내가 털어놓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어머니)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25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